

하나님의 첫째 관심

What Matters to God the Most

이사야 44:21-45: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7월 10일 설교

²¹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²²내가 네 허물을 뿔뿔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²³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²⁴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 ²⁵거짓말 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²⁶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²⁷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²⁸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¹나 여호와는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²“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³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⁴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⁵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⁶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⁷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름으로 봐서는 한국계 같기도 하지요? 실제로 이씨 성 가진 어느 목사가 아들 이름을 사야로 지었다고 합디다만,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치면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 시대를 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성경 이사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전체 몇 장인지는 잘 아시지요? 네 총 66장입니다. 육십 육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지요? 예, 66 Havemeyer Lane도 기억해 놓으면 오다가다 들려 오이나 고추도 따 가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 그렇듯이 이 이사야도 앞날의 일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 많이 예언한 사람이지요. 뭐가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14).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9:6). 둘 다 헨델의 메시아에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수난을 예언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5).

이것 말고도 많습디다만 오늘 읽은 본문도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구약 통독을 통해 다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정복되어 모두 노예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왕국에게 정복을 당해 또 왕과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백 년쯤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왕국이 멸망해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 또 그런 다음 노예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예언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아 타국으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마 하였으니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26).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면 두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28).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수도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거기 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와 파괴된 예루살렘 성곽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돌아오고, 둘째, 성곽을 다시 쌓고, 셋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세 가지 예언을 그 일이 일어나기 이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누가 직접 이룰 것인지 그것까지, 그 일을 맡아 할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셨습니다 (28). 뒤에 가서는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사 45:13).

고레스도 한국계 같지요? 고레스는 이백 년 뒤 실제 역사에 등장하였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창설한 고레스 2세, 다른 말로 고레스 대왕이라 불리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러니까 디즈니 프로그램에서 한나 몬타나 역을 맡았던 배우 마일리 사이러스하고 같습니다. 그가 만든 대제국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보상이었습니다. “나 여호와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한 때 그 지역을 주름잡던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정복할 것입니다.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 45:14).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고” (24).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5).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6-7).

세계 역사도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배반한 북 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국을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로 하여금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별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5).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4).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전에도 제국이라 부를 만한 큰 나라가 여럿 있었지만 페르시아는 여러 문화 여러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합한 정말 제국다운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여러 민족의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 모든 민족을 한 나라로 통합하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나 정치 제도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 서쪽으로는 소아시아를 거쳐 발칸반도까지 뻗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지구상 전체 인구 가운데 약 45퍼센트가 이 페르시아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어 마케도니아 왕국이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지역을 포괄한 제국의 원조, 세계역사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 나라가 바로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대제국 페르시아를 만드신 것은 큰 나라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로 하여금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황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사 45:13).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대제국 페르시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이사라는 사람이 한 말에 “태산불양토양 (泰山不讓土壤), 하해불택세류 (河海不擇細流)”라는 게 있습니다. 큰 산은 작은 흙도 마다 않고 강과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소수 민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은 전통까지 잘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회복령”이라는 칙령을 내려 지금까지 페르시아에 잡혀 와 있는 소수민족들, 특히 이전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국이 워낙 커 그 고향이라는 곳도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본국으로 돌아간다고보다 제국 내에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셈이지요. 그렇게 돌아가서 무너진 성도 고치고 사라진 성전도 다시 지으라 하였습니다 (스 1:1-4).

고레스가 볼 때는 강제로 이주된 민족을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원칙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그 일 하나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신 벌을 거두시고 잡혀가 있던 곳에서 구원하여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일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일입니다. 전에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타국에 잡혀가 노예생활을 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속량물

본문 바로 앞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겁낼 것 없다. 왜? 난 내 것이니까.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가 너를 사랑하니까.

야곱아 하고 부르셨지만 수천 년 전 살았던 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셨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내 이름까지 부르며 사랑한다 하시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계 역사를 주무르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레스가 여러 강대국을 정복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사 43:3).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이고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아프리카, 아라비아를 속량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주셨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 오시려고 대가로 이 여러 강대국을 페르시아에 보상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훌쩍 반해서 강대국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전에 없던 거대한 나라도 세우고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준다면 주변의 강대국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 43:4).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어떤 뜻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핍니다. 역사가 시간과 함께 발전하는 건지, 역사가 이른바 세계정신이라는 걸 구현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뜻도 없이 제 멋대로 굴러가는 건지,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주장이 다르지만 이 역사를 가장 작은 세목 하나까지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의 구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라라” (21).

구원의 기쁨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은 이백 년이나 남은 일입니다. 이사가가 예언할 때만 해도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인데, 벌써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23).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게 노래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노예가 되어 먼 땅에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라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본 기쁨입니다. 이백 년 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 126:1-2).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그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 구원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렇게 탈출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보다 오히려 갈등과 싸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죄를 많이 지어 타국에 노예가 되어 잡혀갔고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것처럼 거기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사실은 완전한 평화와 안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해 놓고 이어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 126:4).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 귀환도, 다 진짜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진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은 언제 옵니까? 이사가가 예언한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원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 살살이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인간관계로 아픔을 겪습니다.

찬양의 이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수경아, 진석아, 영자야, 경호야, 효원아, 종숙아, 유순아, 옥연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 이름을 언제 마구 불러 보겠습니까?) 각각 자기 이름을 한 번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름 부르신 다음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이 예쁜 거, 아이고 이 귀여운 것.”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우스갯지만, 어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 학생이 멋진 답을 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뭘 특별히 바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이지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섬세하고도 강력한 손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게 바로 우립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오늘도 해가 비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그 아래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땅을 살펴보면 온갖 벌레들이 바쁘게 기어 다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 찬양 말고 감사 말고 뭘 더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할 건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아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걱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려고 하면 걱정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인생이 뭐니까? 인생이 곧 걱정 아닙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집 걱정, 차 걱정, 자식 걱정, 어머니 마음이 라는 노래에도 “앓을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했는데 그게 다 걱정 아닙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걱정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 그만두고 하나님만 꼭 믿고 살거라 하셨습니다 (마 6:27-34).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 역사를 움직이실 때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가장 먼저 신경 쓰신다는 믿음입니다. 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오바마가 왜 아무개를 장관으로 임명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인도하실 때도, 또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사를 가게 하시고 여행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저런 모든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첫째 관심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롬 8:28).

역사와 간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잠 1:7) 사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해집니다. 고레스 시대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국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세우신 줄 알았습니다. 공부 따로 안 해도 역사를 보는 눈이 확 열린 거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좀 똑똑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똑똑해졌습니다.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이사를 읽었거든요. 세상 역사를 보는 눈, 그거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구나,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른 믿음, 바른 소망으로 바르게 살려 애쓰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기도는 보통 눈을 감고 합니다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역사와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열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출애굽도,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포로 귀환도, 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완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그 날, 정말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그 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첫째 관심이 곧 내 첫째 관심이 될 것이요,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겁니다. (권수경 목사)